

문맥 제시를 통한 효과적 유도 작문 연구

장 혜 진
(국민대)

1. 서론

유도 작문¹⁾의 주요목적은 작문을 통해 정확한 영어 구문을 학습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영작문 교재의 대부분은 한국어 문장을 제시하고 이에 맞게 문장의 5형식이나 특정한 구문을 활용시키는 유도 작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²⁾. 이들 교재는 주로 구문을 학습시키고자 하는 수단으로 유도 작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도 작문 교수에서의 관건은 학습자가 정확한 구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 일반적으로 유도 작문은 내용을 통제된 작문을 의미한다(Brown 2001; Raimes 1983).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유도 작문은 한국어 문장을 통해 구문을 정확하게 유도시키는 작문을 말한다.
- 2) 본 연구를 위해 200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연구자가 대형 서점인 OO문고의 영작문 교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판매도 순위 20권 중 80%가 유도 작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유도 작문에서 구문을 유도하는 역할은 주로 한국어 문장을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한국어 문장을 어떻게 제시 하느냐의 문제는 유도 작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유도 작문 수업을 운영하다 보면, 한국어 문장만으로 목표한 구문을 유도하기가 힘든 사례들이 상당수 드러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렇게 구문 유도를 어렵게 하는 한국어 문장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 문장에 공손성(politeness)이 드러나지 않아 영어 원문을 유도해 낼 수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격식체로 사용된 “We hope that you will be able to come”을 “네가 올수 있기를 바래.”라는 비격식체 번역으로 제시하면, “We hope~”이 아닌 “We want ~”가 유도되는 경향이 있다. 공손한 문장을 비공손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이다. 둘째, 한국어 문장에서 사용된 어휘의 의미 범주가 넓은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는 어휘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에 익숙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 범주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원래 단어를 생각해내기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주장하다”는 번역을 제시하면 “insist”가 유도될 수 있지만, “우기다” 혹은 “고집부리다”라는 번역을 제시하면 이 단어가 유도되기 힘든 경우가 그러하다. 셋째, 복문에서 “that절”의 정보를 이끄는 발화자의 의도가 한국어 문장 상 드러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 학습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that절”만을 작문하게 된다. 예를 들면, “Tom이 Jane과 다시 사귀고 있다더라(I heard Tom is dating Jane again)”를 작문시키면, “I heard”는 무시된 채, “Tom is dating Jane again.”과 같이 정보만을 작문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어 문장만으로는 이 정보가 발화자가 들은 소문이라는 의도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³⁾.

한편, 이와 같이 유도 작문에서 원문을 유도해내기 힘든 세 가지 번역 유형은 모두 한국어 문장만 제시되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어 문장의 의미를 더욱 보강시켜주는 문맥 없이는 이러한 문제 해결이 힘들 수 있다. 한국어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맥이 있다면, 그

3) 영어 상급자라면 여기에서 제시된 한국어 번역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유도하고자 한 영어구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유도 작문 학습의 대상은 영어 초급자(pre-intermediate)에 한정한다.

문장이 어느 정도의 공손함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 문장에서 사용된 어휘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는지, 그 문장을 전달하는 발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를 학습자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도 작문에서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한국어 문장을 제시해야 원문에 가장 가깝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유도 작문에서 정확한 구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문장 뿐 아니라 그 문장이 사용되는 문맥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맥제시의 효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 간단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일반 대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하여, 문맥 없이 한국어 문장을 제시하여 유도 작문을 실시하는 비교집단과 한국어 문장과 함께 문맥을 제시하여 유도 작문을 실시한 실험집단을 구성하겠다. 조사에서 유도하고자 하는 목표는 절을 포함한 복문의 주절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가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용이성을 위해 절을 포함하고 있는 복문(“주어+서술어[동사 or 형용사]+that 절”) 8문장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이 8개의 구문을 유도해낼 수 있는 한국어 문장 제시 방법을 조사해 보겠다.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유도 작문 시 학습자에게 문맥이 제시되었을 때, 어느 정도로 유도하고자 하는 구문에 가깝게 작문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유도 작문과 한국어 문장

유도 작문은 가장 일반적인 구문 학습법이면서도, 유도 작문과 관련된 문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유도 작문과 한국어 문장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문헌 역시 전무하다. 유도 작문에 대한 소극적인 연구와는 상반되게, 유도 작문을 학습에 이용하는 움직임은 상당히 적극적이며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영작문 교재의 머리말을 보면, 구문학습으로써의 유도 작문의 효용성에 대해 상당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도 작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영작문 교재에서 기대되는 학습효과는 다음과 같다.

“영작문 패턴으로 따라잡기”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영어로 옮기기 위해서, 먼저 영어가 갖고 있는 일정한 표현의 기준틀 즉, 문장의 패턴을 익

혀야 한다고 제시했다. “영어식 사고력을 쑥 키워주는 영작문”에서는 작문학습을 위해서 영어식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영어식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표현내용에 따른 구문과 품사별 용법에 따른 구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패러다임 영작문”에서도 학습자가 영어의 기본 골격, 즉 구문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 영어 문장의 기본 5형식 및 특정한 기능을 가지는 구문을 중심으로 작문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상당수의 영작문 교재에는 유도 작문의 구문학습으로서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교재들이 정확한 구문을 유도해낼 수 있는 한국어 문장을 제시하고 있을까? 특히 유도 작문은 주로 한국어 문장 제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어 문장이 정확한 구문을 유도하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검증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교재 중에는 한국어 문장만으로는 원문이 유도되기 어려운 사례를 종종 보인다.

A. 안됐습니다만, 저는 당신에게 집을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영작 98)

한국어 문장만으로 보면 “I'm sorry, but I can't allow you to rent the house”라는 구문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이 문장을 통해 유도하고자 하는 원문은 “I'm sorry, but I don't see my way to allowing you to rent the house.”이다. 문제는 원문의 어감이 상당히 우회적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쁜 소식이나 알리기 꺼려지는 정보를 제시할 때,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완곡하게 우회하여 표현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공손하게 전달된다. 원문에서는 나쁜 소식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I don't see my way”라는 표현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가 번역 상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원문이 유도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B. 당신이 계약으로부터 해제되었을 때, 우리에게 연락하십시오
(윤영작 113)

위의 예문을 보면, 전체적인 어감이 “명령”으로 들린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은 “Contact us”로 작문해도 무방할 듯하다. 하지만 원문은 “Please contact us”이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명령할 때에는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Please”와 같은 완충제(buffer)를 사용하게 되는데, 한국어 문장에 이러한 완충제가 드러나지 않다보니, 원문을 유도할 수가 없게 된다⁴⁾. 다음의 사례는 발화자의 의도가 한국어 문장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원문을 유도하기는 어려운 사례이다.

C. 그녀가 누구일까?
(김진수 48)

이 문장은 “?”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형태상 의문문이다. “Who is she?”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하지만 이 문장을 통해 유도하고자 한 영어 원문은 “I wonder who she is.”이다. 즉, 영어 원문에서는 진짜 물어보는 것이 아닌 발화자가 궁금해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달하는 평서문이다. 하지만 한국어 문장만으로는 이러한 발화자의 의도가 부각되기 힘들다.

D. 그는 그녀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우겼다.
(김연승 70)

이 문장에서 유도하고 있는 구문은 “He insisted that she didn't smoke”이다. 하지만 이 문장을 위와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보면 학습자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주장하다) 보다 넓은 한국어 어휘를 선택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학습자는 비록 그 어휘가 기본적인 수준일지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유도 작문에서 한국어 문장은 학습자가 원문에 가까이 갈수 있

4) 이러한 비슷한 예는 “50개 패턴만으로 술술 되는 영작문”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었다.

도록 도와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어 문장만으로 해당 영어구문으로 유도되기 부족한 사례를 보여준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문장에 드러나기 힘든 공손함의 정도, 발화자의 의도, 그리고 적절한 어휘 선택 실마리가 모두 문맥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면 학습자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렇다면 과연 위에서 살펴본 부정적인 사례가 실제로 문맥제시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

3. 연구방법

3.1.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조사 대상은 대학생 144명으로 대학 교양작문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실험집단은 총 72명으로 문맥을 제시하여 유도 작문을 실시하였다. 비교집단 역시 72명으로 문맥 없이 유도 작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은 동일한 수의 1,2학년과 3,4학년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조사 대상⁵⁾

	실험집단	비교집단
저학년(1,2학년)	42	42
고학년(3,4학년)	30	30
총	72	72

본 조사의 목적은 문맥이 제시된 문장이 구문 유도에 더 효과적일지 아닐지의 일반적인 경향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 간 언어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 사용을 허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5) 저학년과 고학년 비율을 맞춘 이유는 고학년의 경우 저학년과 비교해서 취업이나 진학 때문에 영어 학습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어실력이 더 우수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한다.

[표 2] 조사에서 사용된 문장 내역

문항	문장	출처
1	We hope you'll be able to come.	Guide to Patterns and Usage in English(Hornby, 1975)
2	I hope you will print my story.	Best of Ann Landers 101 (홍진기획, 2002)
3	I finally confessed to Greg that I set him up that night.	
4	He suggested we meet for dinner.	
5	He insists that everything is my fault.	
6	I think that's in the back building.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 (Mean Girls)”
7	I'm sure she has no idea.	Best of Ann Landers 101 (홍진기획, 2002)
8	I heard Regina is dating Samuel.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 (Mean Girls)”

이들 문장은 모두 “that절”을 포함하고 있는 복문으로, 조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절을 이끄는 주절 “주어+서술어(동사 or 형용사)”를 원문에 가깝게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실험집단의 유도 작문은 다음과 같이 문맥이 함께 제시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문맥은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기존에 있는 내용을 각색하였다.

E. [Invitation]

저희 학교에서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선생님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교집단의 유도 작문은 똑같은 문장을 제시하되, 문맥 없이 “해라체” 번역으로 제시되었다.

F. 우리는 당신이 올 수 있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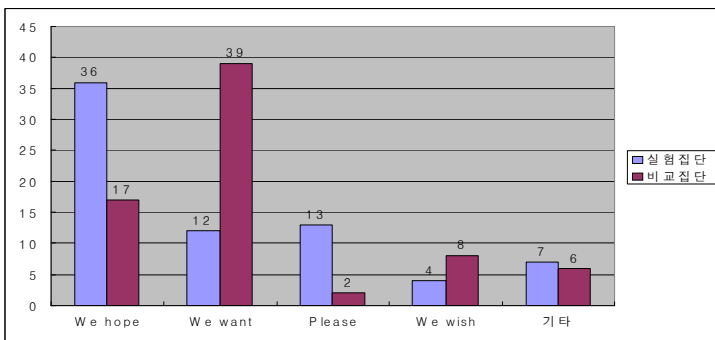
각 8문장을 총 15분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각자 언어능력이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두 반 모두 사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연구 결과 및 분석⁶⁾

3.2.1. 문장의 공손성과 문맥의 역할

1, 2번 문항에서는 문맥의 유무에 따라 문장의 공손성에 대한 정보가 학습자에게 인식되어 작문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비교집단 분석 결과는 한국어 문장에 공손성이 드러나지 않아서 원문이 유도되기 힘든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실험집단에서는 문맥을 통해 공손성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영어 원문에 가깝게 유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그래프 1] 1번 문항⁷⁾ 답안 분석 결과 (빈도수)



[그래프 1]은 1번 문항의 작문 결과이다. 비교집단에게는 1번 문항 즉, “우리는 당신이 올 수 있길 바란다.”라는 “해라체” 번역을 제시해 주었다. 그랬더니 여기에 맞게 비격식체의 구문인 “We want~”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장은 의도가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표현될수록 공손성이 적게 나타나고, 불분명하고 모호할수록 공손성의 정도가 커진다(채준기 1989). “We want~”와 같이

6) 조사된 8문항 중 1, 2, 3, 4, 7, 8문항을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5문항은 3, 4문항 분석 결과와 비슷하고, 6문항은 7, 8문항 분석결과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7) 원문: We hope you will be able to 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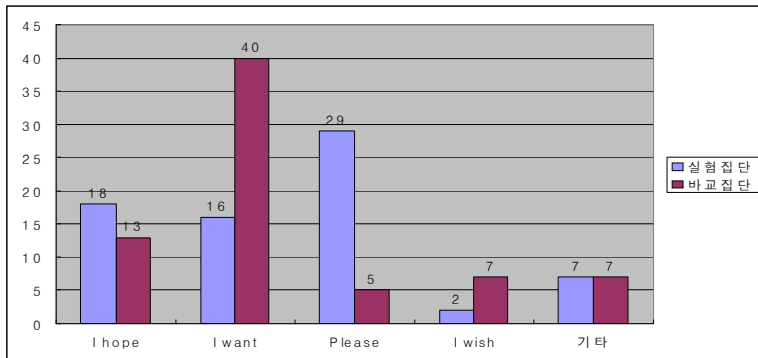
직접적이고 명확한 발화는 가장 공손성이 낮은 것으로 전달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다소 우회적인 “We hope that ~”은 더 공손성을 보여주는 구문이라 할 수 있겠다. 실험집단은 다음과 같은 문맥을 통해 이 문장이 보다 공손함이 필요한 문맥이라는 것이 인식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 결과 과반 수 이상이 “We hope”를 이용한 원문에 가깝게 접근하였다.

G. [Invitation]

저희 학교에서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선생님들과 만남의 장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실험집단에서는 초대장이라는 문어적 상황이 부각되어, “We hope”를 사용한 빈도수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번 문항에서도 역시 비교집단은 “내 이야기를 실어(print)주길 바란다.”는 한국어 문장을 작문 할 때, “I want”가 유도되는 빈도수가 높았다.

[그래프 2] 2번 문항⁸⁾ 답안 분석 결과(빈도수)



역시 비교집단은 여전히 문맥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바란다”의 의미로 “I want”를 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1번 문항 분석의 결과와 같이 비슷한 경향

8) 원문: I hope you print my story.

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험집단의 결과는 다소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I hope”를 사용하는 빈도수나 “I want”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험집단의 “Please” 사용 빈도수가 갑자기 높아진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겠다.

H. [신문 기고문의 도입부]

전 이 칼럼에 게재되는 “How we met”코너의 편지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선생님의 명쾌한 상담에 언제나 감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선생님의 상담이 필요 하합니다. 제 이야기를 실어(print)주시길 바랍니다.

실험집단에 제시된 2번문항의 앞 문맥은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저 역시 선생님의 상담이 필요 합니다”이다. 이러한 부탁의 문맥에 어울리게 부탁의 어조가 부각되어 “I hope”보다는 “Please ~” 구문 선택의 빈도수가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는 문맥제시의 방향을 잘못 유도시켜서 나올 수 있는 오류를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비록 실험집단이 원문에 접근하지는 않았지만, 문맥제시가 구문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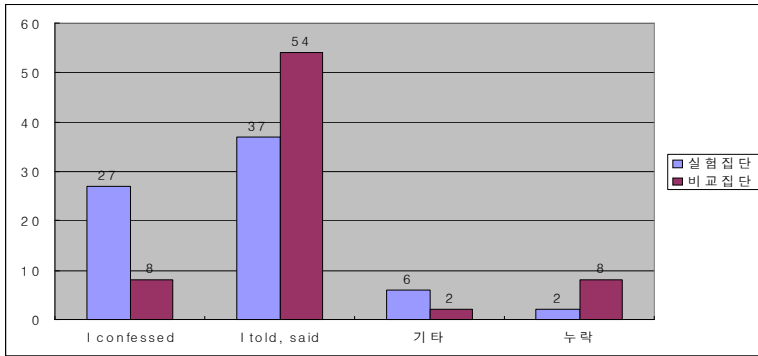
이와 같이 1, 2번 문항 결과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도 작문 시, 공손성에 대한 정보를 문맥을 통해서 제시하여 원문에 가깝게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일 것이다.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요소 뿐 아니라 그 언어가 가진 상황적인 요소까지도 고려해야한다. 정확한 번역은 언어 자체적 의미와 상황적 의미를 결합시켜야만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Lee(2000)는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상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만 적절한 번역결과가 얻어진다는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유도 작문과 같이 정확한 구문 유도를 요하는 경우라면 문맥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할 것이다.

3.2.2. 문장의 어휘 선택과 문맥의 역할

3,4번 문항에서는 사전적 의미보다 넓게 번역된 우리말 어휘가 문맥을 통해

적절한 영어 어휘로 유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래프 3] 3번 문항⁹⁾ 답안 분석 결과 (빈도수)



[그래프 3]에서의 비교집단은 3번 문항 “그에게 그날 밤 내가 그를 꼬신거라(set him up)고 털어놨다.”에서 “털어놨다”의 동사의 의미를 선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학습자가 단순히 “I told or I said that~”구문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문맥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털어놨다”의 의미를 “말하다”로 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에서 유도하고자 했던 어휘는 “confess”로 이 어휘는 특히 자신의 죄를 얘기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고백하다”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털어놓다”는 우리말로 바꾸었더니, 그다지 정답률이 높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한 어휘에 대해 단편적으로 사전적인 한 가지 의미만을 알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험집단에서도 다소 나타난다. 실험집단은 문맥상 “털어놓다”의 실마리를 좀 더 부각시켜 주어 “confess”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했다.

9) I confessed to Greg that I set him up that n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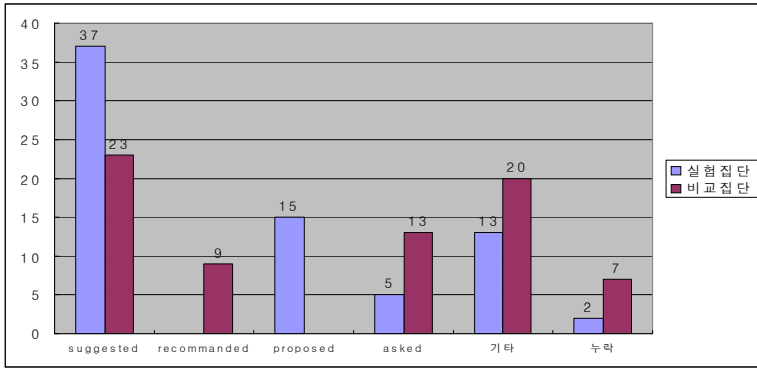
I. 15년 전, 저는 아주 잘생긴 Greg이란 남자 아래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친해질 기회를 찾다가, 그가 지나갈 때 즈음에 일부러 방문을 열어 놓고, 바나나 빵을 굽기로 마음먹었죠. 이 빵 냄새에 그 남자가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후 18개월 뒤에 약혼을 했고, 얼마 전 13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얼마 전, 마침내 Greg에게 그날 밤 제가 그를 꼬신 거라(set him up)고 털어놨습니다. 제 고백을 듣고는 완전히 사기 당했다고 펄펄 뛰더군요.

문맥을 통해서 털어놓은 행위가 “고백”이라는 것을 드러나도록 했기 때문에, 실험집단의 “I confess” 빈도수는 비교집단 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I told or said”의 빈도수가 훨씬 높았다는 점에서 이 단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현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⁰⁾. 따라서 이 경우는 “confess”라는 어휘 자체가 학습자에게 어려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어휘 보다 좀 더 평이한 어휘를 이용한 4번 문항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프 4]에서 볼 수 있듯이, 4번 문항에서는 비교집단에게 문맥 없이 “그는 우리 만나서 저녁하자(meet for dinner)고 권했다.”고 제시되었을 때, “권했다”에 해당되는 동사가 “suggest”, “recommend”, “ask” 등 상당히 다양하게 나왔다. 그 중, 의미상 상관없는 어휘인 “recommend”가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리말 “권하다”의 의미에는 “추천하다”라는 것과 “제안하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두 어휘는 확연히 다르다. “추천하다”는 “좋거나 알맞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남에게 권할 때”사용된다. 하지만 문맥이 제시되지 않은 비교집단의 경우는 “권하다”를 “추천하다”의 의미로 혼돈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10) 3,4학년은 1,2학년보다 “confess”를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그래프 4] 4번 문항¹¹⁾ 답안 분석 결과 (빈도수)



이에 비해 문맥이 제시되어 있는 실험집단의 경우는 이런 사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오히려 실험집단에서는 “suggest”와 유사한 의미의 “propose”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실험집단의 결과는 중의적일 수 있는 “권하다”의 의미를 문맥적으로 “제안하다”의 의미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J. 전에 다니던 직장에 제가 짝사랑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제가 직장을 옮기고 나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글썄 그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만나서 저녁하자(meet for dinner)고 권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일반적으로 시중 영작문 교재에서는 이와 같이 구문이 유도되지 않는 사례를 피하기 위해 한국어 문장에 사전적인 뜻이 직접 드러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유도하고자 하는 어휘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겠으나, 사전적인 뜻이 나오지 않는 한은 학습자가 그 어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훈련으로는 언어 활용으로 연결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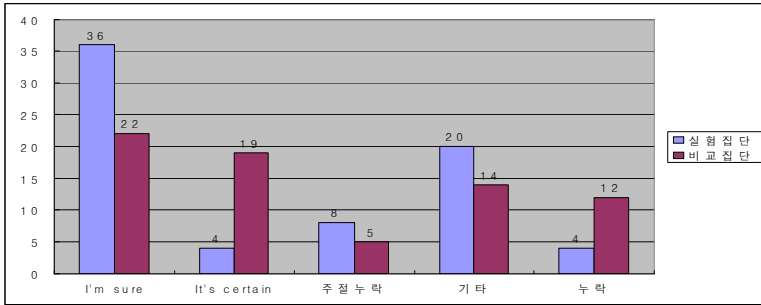
11) 원문: He suggested we meet for dinner.

서 자연스러운 우리말 번역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문맥 제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3.3.3. 정보를 제시하는 발화자의 의도와 문맥의 역할

마지막으로 7, 8문항은 발화자의 의도가 문맥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래프 5] 7번 문항¹²⁾ 답안 분석 결과 (빈도수)



[그래프 5]에서 볼 수 있는 실험집단 결과는 문맥 제시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발화자의 의도가 파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실험집단에 게 제시된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K. 요즘 아빠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제가 아빠에게 직접 이 문제를 따져 볼까요? 엄마가 아시면 어찌죠? 하지만 전혀 모르고(have no idea) 계신 게 확실 해요. 제 확신이 맞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맥상 7번 문항에서 유도하고자 하는 문장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발화자의 확신이라는 의도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전혀 모르고(have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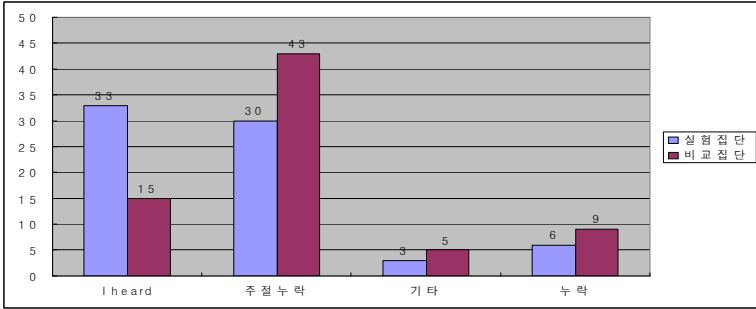
12) I'm sure she has no idea.

idea) 계신 게 확실해요.”라는 번역에 주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작문 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고 주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문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어가 자주 생략되는 우리말 특성상 주어가 생략된 번역이 상당히 현실성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문맥 제시를 통해 주어가 생략된 형태의 한국어 문장 역시 유도 작문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에 비해 비교집단의 경우는 문맥이 없이 “그녀는 전혀 모르고(have no idea) 있는 게 확실하다.”는 한국어 문장만 제시되었기 때문에 “It's certain that” 구문과 “I'm sure that”가 비슷한 빈도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한국어 문장에 주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도된 문장 역시 주어가 드러나지 않은 구문을 선택하는 빈도수가 더 높아졌다. “It's certain that~” 구문이나 “I'm sure that~” 모두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두 문장은 각각 어울리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다소 딱딱한 발화 상황이나, 문어체에 어울리겠지만, 후자인 “I'm sure that~”구문은 다소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어울리는 구문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영작문 교재에서는 “I'm sure that”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는 ~라는 것을 확신 한다”라고 직접 발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의 번역체 문장이라면, 당연히 “I'm sure”를 유도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번역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말 어법에 맞아야 하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도 작문에서 사용되는 우리말 번역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유도 작문에서도 이러한 기본 전제를 지키면서도 유도 작문의 학습목표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문맥의 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6] 결과 역시 정보에 대한 발화자의 의도가 문맥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프 6] 8번 문항¹³⁾ 답안 분석 결과 (빈도수)



8번 문항에서는 비교집단에게 “Regina는 Samuel과 다시 사귀고(date) 있다고 한다.”라는 한국어 문장만을 제시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절을 생략하고 “Regina is dating Samuel again.”이라는 구문을 작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어 문장만으로는 “~고 한다”가 그다지 중요한 정보로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좀 더 발화자의 의도를 부각시키고자 “나는 Regina는 Samuel과 다시 사귀고(date)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번역을 제시하면, 쉽게 “I heard that”구문이 유도되었지만, “I heard that~”이 사용되는 어감은 전달되기 어렵다. “I heard that”구문은 발화자가 들었다는 행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한 소문이 있다”고 하는 소식 전달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문 활용측면에서 보았을 때, “~라고 들었다”고 번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¹⁴⁾. 하지만 실험집단의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실험집단의 과반 수 이상은 “Regina가 Samuel과 다시 사귀고 있다더라”는 번역에서 발화자의 의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작문에는 “I heard”가 유도될 수 있었다.

13) 원문: I heard Regina is dating Samuel again.

14) “내가 듣기에~”라는 식으로 순차 번역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단순히 떠도는 소문을 언급하거나 전달할 때, “내가 듣기에~”라거나 “~라고 들었다”는 구문을 사용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래”라거나 “~라더라”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L. 핫뉴스야! Regina가 Samuel과 다시 사귀고(date) 있다더라. 내가 들은 소문은 확실해. 직접 데이트 장면을 목격한 애들한테 들은 거야. 절대 안 볼 것처럼 그러더니, 역시 남녀관계는 모를 일이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맥 없이 한국어 문장만을 제시하면 의도한 영어 원문에 접근하기 힘들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문장이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문맥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시된 경우, 한국어 문장으로 제시될 수 없는 공손성에 대한 정보, 적절한 어휘 선택에 대한 정보, 발화자의 의도에 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4. 결론 및 제언

유도 작문의 주요목적은 작문을 통해 정확한 영어 구문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유도 작문에서는 정확한 영어 구문을 유도해낼 수 있는 방법 연구가 관건이다. 특히 유도 작문은 한국어 문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어 문장 제시 방법은 유도 작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어 문장만으로 원문이 정확하게 유도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 문장을 통해 학습시키고자 한 구문이 유도되지 않은 경우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한국어 문장에 공손성이 번역되지 않아 적절한 유도 원문을 유도해 낼 수 없는 경우이다. 둘째, 한국어 문장에서 사용된 어휘의 의미 범주가 넓어서 적절한 영어 어휘를 선택하기 힘든 경우이다. 셋째, 한국어 문장에 발화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목표로 한 영어구문이 적절하게 유도되기 힘든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어 문장 뿐 아니라 문맥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실험에서는 문맥 없이 문장만을 제시하여 유도 작문 시킨 비교집단과 문맥을 제시하여 작문을 유도한 실험집단을 비교해 봄으로써, 실험집단의 결과

가 더 유도하고자 하는 구문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유도 작문에서 문맥 제시를 통해 유도 작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실패 사례를 다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유도 작문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영작문 학습방법이면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3가지 유형의 유도 작문 실패 사례보다 더 다양한 사례가 수업 현장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에 맞는 해결방안 또한 다양화 되어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맥제시 이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정확한 구문을 유도할 수 있는지 역시 유도 구문과 관련된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도 작문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계속 확장 진행되어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구문 유도 방법의 틀이 갖추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남희. 2006. 『50개 패턴만으로 술술 되는 영작문』, 서울: 문예림.
- 김연승. 1999. 『대학 초급 영작문』, 서울: 동인.
- 김진수. 2005. 『영작문 급소잡기』, 서울: 씨앤톡.
- 윤영작. 2004. 『영작문 패턴으로 따라잡기』, 서울: 문예림.
- 이현구. 2002. 『패러다임 영작문』, 서울: 백산출판사.
- 장무석. 2000. 『영어식 사고력을 쑥 키워주는 영작문』, 서울: 월드컴.
- 정미희. 2004. 『기본 5형식 영작문 노트』, 서울: 조은문화사.
- 채준기. 1989. 「간접화행의 의미」. 『어문 연구 제 14집』. 경북대학교 어학 연구소.
- 홍진기획 편. 2002. *Best of Ann Landers 101*. 서울: 홍진기획.
-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2nd ed.).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 Hornby, A.S. 1975. *Guide to Patterns and Usage in English*, London: Oxford UP.

Lee, Dong-young. 2000. "A Method of Computationally Translating Dialogue Using Its Situation: the Case of English-into-Korean".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3:1.

Raimes, A. 1983. *Techniques in Teaching Writing*. New York: Oxford UP.

K C I

[Abstract]

A Study on Guided Writing and Context

Jang, Hyejin
(Kookmin University)

One of the main purposes of guided writing is to help learners find the structure of a target language so that they can use appropriate English sentences corresponding to their native language. In guided writing, the learners' native language is used as a guide which leads the learners to the structure they are going to learn. Therefore, the use of English sentences with proper structures in guided writing depends on the learners' understanding of the Korean sentences provided as a guider. However, in the absence of any context provided in guided writing, the learners may not be able to use English sentences with suitable structure because (1) learners may not recognize the level of politeness; (2) find suitable English structure and vocabulary when they encounter broad translation; and (3) identify the speaker's intention.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whether context can help learners write suitable English sentences in guided writing. To answer the ques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n experiment with two groups (a control and an experimental group). The control group had to write English sentences with only Korean sentences. Any context related to the Korean sentences was not provided. On the other hand, the experimental group had to do writing with related context as well as Korean sentenc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experimental group with context used more appropriate structure and vocabulary in their writing than the control group di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 sentences with context can guide learners to more suitable English sentences in guided writing.

▶Key Words: guided writing, controlled writing, writing, context, translation

장혜진

국민대학교 강사

jinnyda2000@yahoo.co.kr

관심분야: 번역

논문투고일: 2006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06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06년 6월 10일

K C I